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2012 March

Contents

- Highlight
- UNEP FI 출판물 & 뉴스
- UNEP FI 행사
- UNEP FI 트레이닝
- UNEP FI 파트너 뉴스
- UNEP FI KG 뉴스



UNEP 사무총장, 아프리카 재생가능에너지 UNEP FI 보고서 발표



UNEP 사무총장 아킴 슈타이너가 나이로비의 기자 회견에서 UNEP FI의 가장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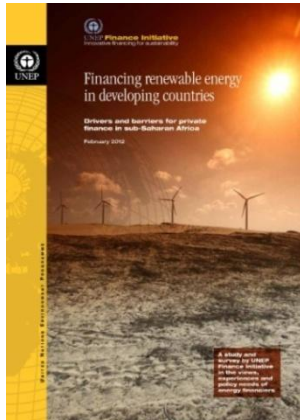
UNEP 사무총장 아킴 슈타이너는 2월 말 나이로비에서 UNEP FI의 가장 최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현명한 공공 정책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청정 에너지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자본 조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민간투자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은 현재 아프리카의 재생가능에너지 솔루션에 방해물이 되는 문제들이 민간투자 지원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에너지 가속화와 확대는 저탄소이고 자원효율적인 ‘포괄적’ 녹색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UN 사무차장이자 UNEP 사무총장 아킴 슈타이너는 말했다. 보고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의 활성화 장애 요인을 비용, 구조, 위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 요인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국제 정책 결정자에 대한 결론과 제안은 38개 금융 기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와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여기 클릭](#)
 보고서 요약 동영상을 보려면 [여기 클릭](#)

새로운 보고서: 개발도상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조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민간투자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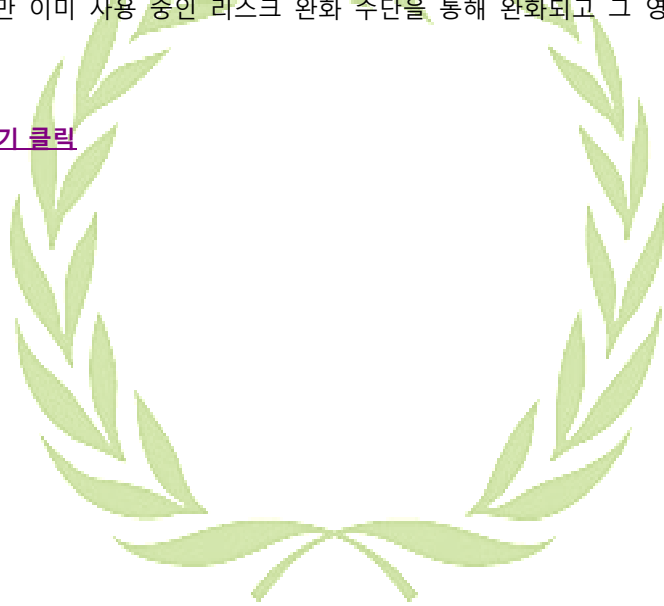
개발도상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조달은 민간투자 부문 투입에 따라 아프리카 내 개발되지 않은 풍부한 재생 가능 자원이 증가하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에너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38개 금융기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인센티브가 기존 에너지 자원과는 달리 재생 가능 자원이 어떻게 전기 생산과 관련된 높은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부문의 투자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보여 준다.

두 번째 에너지 .문제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부적응 문제에는 새로운 주체들과 혁신을 위한 시장 및 전력망 진입이 어려워 발생하는 독점적 점유 현상 등이 있는데,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높은 분권화와 신규 에너지 상품에 대한 더 용이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에너지 부문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 가능 에너지 공익 사업 발전의 세 번째 장애 요인은 현재 많은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 규제적, 상업적 리스크이다. 이 위험 요소들은 비록 복잡하나 오늘날 부족하지만 이미 사용 중인 리스크 완화 수단을 통해 완화되고 그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전체 다운로드 [여기 클릭](#)





자연자본선언(Natural Capital Declaration) 지지 자산운용 산업의 지원으로 가속화

Natural Capital Declaration 최근 4개의 금융 기관이 추가로 자연자본선언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전체 동참자들의 수는 여섯 기관으로 늘었다. 이 중 절반이 자산운용 사다.

UNEP FI, 글로벌 캐노피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가능성 연구 EAESP 센터의 협력 프로젝트인 자연자본선언은 중요한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자연자본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금융 기관들의 커밋먼트이다. 이는 올해 6월 리우 +20 지구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신규 서명기관들은 Zebin 자산운용사, 로베코 자회사 지속가능자산운용사, 칼레도니아 웰스매니지먼트 Ltd, 멕시코은행 FIRA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UNEP FI Upcoming Events

자연자본선언(NCD) 웨비나 - 3월 6일 오전 9시(유럽중앙시간), 3월 7일 오후 3시(유럽 중앙시간)

UNEP FI, 글로벌 캐노피 프로그램(GCP),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 경영대학 지속가능성 연구센터에서 UNEP FI 회원들을 자연자본선언의 기본 요점들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한 시간 예정)로 초대한다. 웨비나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 NCD의 내용과 NCD가 리우 +20 지구정상회담에서 발표되는 이유
- 금융기관들(은행, 투자, 보험계)이 NCD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 금융기관들이 NCD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뱅크와 라보뱅크가 지지자로서 NCD에 동참하는 이유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프로모션: UNEP FI 회원들과 시민 사회 대표들에게 모든 UNEP FI 강좌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www.unepfi.org/training

기후 변화: 금융 부문의 위기와 기회 온라인 강좌



다음 강좌: 4월 16일~5월 7일 (영어)

기후 변화: 기후 변화 현상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력 향상의 필요성에 따라 개설된 본 강좌는 수강자들이 기후 변화, 국제 기후 변화 제도의 구조 이면의 과학, 그리고 은행·투자·보험계를 아우르는 금융 시장이 그에 따른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은 [여기 클릭](#)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자본 조달(FEEE) 온라인 강좌



다음 강좌: 6월 11~ 6월 29일 (스페인어)

본 강좌의 목적은 특히 자산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 자본 조달과 투자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은 [여기 클릭](#)



벤쿠버 국제 환경 전시회(Globe 2012) - 3월 14일~3월 16일, 캐나다 벤쿠버



UNEP FI가 영광스럽게도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책임 투자, 통합 보고, 그리고 더 깨끗한 경제에 대한 주요 회담의 플랫폼이 되는 벤쿠버 국제 환경 전시회(Globe 2012)와 파트너가 되었다. 세계 곳곳의 비즈니스와 정부 지도자들이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으로 더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TBLI 2012 아시아 컨퍼런스 - 5월 24일~5월 25일, 중국 홍콩



최고의 연례 글로벌 네트워킹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임팩트 투자 학습 행사이다. 2012년의 주제는 "Why Occupy? Try TBLI"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클릭](#)

UNEP FI 사무국과 연락하시려면 info_lat@unepfi.org으로 메일을 보내시거나 www.unepfi.org을 방문해 주십시오.



대구은행 '그린기업 신용'체크카드'발급

대구은행이 손쉽게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린기업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환경부와 제휴해 발급되는 그린카드는 국민의 녹색소비와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를 연계한 카드로 친환경 에코머니 가맹점 결제, 생활 에너지 절약 등의 녹색 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된다. 신용카드는 포인트 적립형과 택스(TAX) 서비스형 2종류를 발급되며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포인트 적립형은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의 0.2%를 에코머니 법인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택스 서비스형은 전자세금계산서 무료이용, 신용카드부가세환급신고 지원 등의 통합회계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개별기업 니즈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 저탄소 녹색경영 앞장

신한은행 서울 오류동지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최근 서진원 은행장으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았다. 지난 1월 '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기념으로 당시 행사장에서 사용된 현수막을 재활용한 파우치형 필통이다.

신한은행이 '녹색경영'을 이끄는 리딩뱅크로 거듭나고 있다. 재활용 필통은 매년 개최되는 종합업적평가대회를 '탄소중립행사'로 진행하기 위한 신한은행의 녹색경영 전략 중 하나이다. 금융권 최초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탄소중립행사는 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만큼 서울 중랑캠핑숲, 구로푸른수목원 등에 나무를 심는 등 온실가스 상쇄(Carbon off-set) 활동이다.

지난해에는 경북 안동에 '신한 희망의 숲'을 조성했고,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시범참여자로 함께했다. 신한은행은 또 모든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을 환경부 인증 친환경제품으로 바꾸고, 소외계층의 에너지 지원을 위해 태양광발전설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교체, 빗물 재활용 시설 등을 보급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세미나'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 이하 '수은')은 20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우리 녹색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수출입은행·녹색성장위원회·지식경제부·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너지경제연구원·녹색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방안과 정부 정책 및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제도 등을 토론했다.

수은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 선도를 위해 직접출자, 수출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복합금융, 단독 PF 등 시장선도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그린 플랜트'와 함께, 녹색기업에 대한 소단계별 금융을 지원해 녹색선도기업을 육성하는 '그린 챔피언'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사업발굴, 금융자문·추진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등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서울시 주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참여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금융기관 최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사업에 2014년까지 참여하며, 참여기간 동안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달성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배출권 가상거래공간(www.meets.or.kr)을 통해 사이버머니로 배출권 매도, 매수 거래를 하게 된다.

KB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또 KB Green ESCO 기업대출, KB Green Growth Loan, KB Green Groth 카드, KB업무택시 전용 기업카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고객 대상 상품을 개발해 일반 국민도 녹색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향후 강화될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는 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포스터 그리기' 개최

하나은행(은행장·김정태)이 '제20회 하나 자연사랑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하나 자연사랑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전국의 3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그림 그리기 대회로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모두 3천430명 어린이들의 작품을 선별하고 '닷컴 이벤트'와 '스크랩 이벤트', '내가 다녀온 자연사랑 여행'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장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하나은행장상을 수상한 학교는 미술교육비 100만원과 함께 홍익대학교 김주연 교수가 디자인한 친환경 미술학습 공간인 '꿈의 미술실'을 지원한다.

우리은행, '세계 물의 날' 맞아 '우리사랑e나눔터' 확대 개편

우리은행은 22일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존에 운영 중인 인터넷 기부 프로그램 '우리사랑e나눔터'에 '생명의 물 지원' 테마를 추가,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우리사랑e나눔터는 지난 2010년 10월 금융권 최초로 개발된 인터넷 기부 프로그램으로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인터넷뱅킹 이체 시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명의 물 지원' 사업은 'Good Water Project'라는 이름으로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생명의 물 지원' 사업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매년 상시 기부가 가능한 우리사랑e나눔터의 특성과 더불어 일시·정기후원도 가능해 인터넷 소액기부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5일까지 1000원씩 굿네이버스에 후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우리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식수 펌프를 선물하는 '소셜 100원의 기적'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현대해상, '하이카Eco자동차보험' 개편

현대해상이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고객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는 친환경 보험상품인 하이카ECO자동차보험을 새롭게 개편해 재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해상이 2010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하이카ECO 자동차보험은 재활용 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수리하면 신제품과의 가격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자동차보험으로 현재 재활용 부품 유통업체인 케이파츠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출시 초기 혼선을 줄이고 제도 정착을 위해 중고부품 공급이 원활한 8년 이상 경과한 소나타와 아반떼 차량에만 적용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대상 차종을 8년 이상 경과된 모든 국산 승용차로 확대했다. 또 차량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존 10종 외장 부품 외에 성능검사와 보수를 거쳐 재조립해 사용하는 재제조 부품까지 적용 품목에 포함해 보상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고객에게 부품당 최고 5만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하던 ECO 지원금도 최고 7만원으로 확대했다.

H 현대해상

현대해상 자동차업무부 이성호 부장은 "중고부품 활용 자동차보험은 환경보호와 더불어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동차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지구촌 전등끄기 캠페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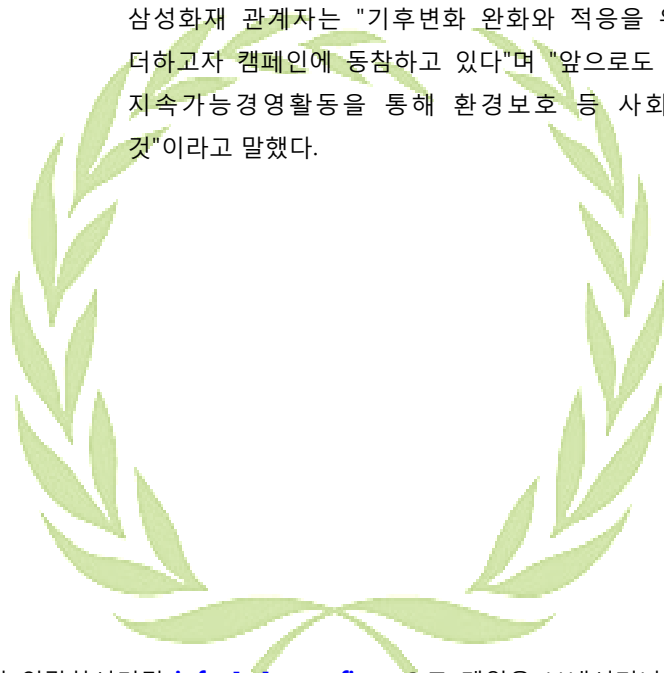
삼성화재는 오는 31일 오후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실시되는 '지구촌 전등 끄기(Earth Hour)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운동으로, 지난 2007년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의 주도로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됐다.

삼성화재는 2010년부터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 을지로 본사 사옥을 포함한 전국 32개 건물의 외관조명, 광고판 등을 소등한다.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는 각 가정에서 전등 끄기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에너지 경영방침 수립,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및 공개,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등 탄소경영체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Eco-e 전자약관, 에코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자동차부품재활용특약, 날씨보험, 전자서명제도 도입 등 친환경 보험상품 및 프로세스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활동에 힘을 더하고자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및 지속가능경영활동을 통해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NEP FI 사무국과 연락하시려면 info_lat@unepfi.org으로 메일을 보내시거나 www.unepfi.org을 방문해 주십시오.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ECO-FRONTI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 49 Fax: (+82 2) 3153-7703
www.ecofrontier.com

